

이 보도자료는 **2018. 11. 29.(목) 11:00 이후**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
제2차장검사 이수권
전화 031-212-1002
팩스 031-210-4456

보도자료 2018. 11. 29.(목)

자료문의 : 인권·첨단범죄 전담부
전화번호 : 031-212-3132
팩스 : 031-212-4743
주책일자 : 부장검사 김옥준

스마트폰 OLED 엣지패널 기술 해외 유출 사건 수사 결과 - Flexible OLED 패널 3D Lamination 관련 첨단기술 해외 유출

- 수원지방검찰청 인권·첨단범죄전담부(부장검사 김옥준)는,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이첩된 'Flexible OLED 패널 3D Lamination' 관련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,
 - 전세계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95%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S社の 'Flexible OLED 패널 3D Lamination' 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할 목적으로
 - 위장회사 B회사를 설립하고 S社 기술자료와 S社 기술이 체화된 도면 및 설비를 유출한 A회사 사장 등 11명을 기소, 2명을 기소중지 하였음
 - 기술유출 범행을 주도한 A회사 사장, 前전무, 설계팀장 등 총 3명을 구속기소, 이에 가담한 A회사, B회사 임직원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, 공범인 중국업체 직원 2명을 기소중지하였고,
 -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하여 부동산, 예금채권 등에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
- ※ 범행구조도 별첨
- 수원지검은 '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'으로서, 앞으로도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

1 사건의 개요

※ 피고인별 처분내용 별첨

- 피고인들은 공모하여, 2018. 4.경 S社로부터 제공받은 Flexible OLED 패널 3D Lamination 관련 설비사양서,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용으로 설립한 B회사에 유출하고, 그 중 일부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하여 B회사가 155억 원 상당의 이득 취득
 - 죄명 :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위반,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
 -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. 5.~8. B회사에서 S社の 기술자료 및 S社の 기술이 체화된 도면 등을 부정사용하고, S社の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3D Lamination 설비 16대를 수출하고,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침
- ※ A회사는 모바일 패널 제조 설비 등 자동화설비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2017. 12. 기준 매출액 1조 1,384억 원, 시가 총액 1조 282억 원 규모의 회사임

2 주요 수사 경과

- '18. 8. 22. 대검 첩보(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) 접수
- '18. 9. ~ 10. 압수수색(회사, 부산항만, 차명폰 등) 및 관련자 소환 조사
- '18. 10. 17. A회사 설계팀장 ㄸ〇〇 구속
- '18. 11. 2. B회사 부사장(前 A회사 전무) ㄴ〇〇 구속
- '18. 11. 15. A회사 사장 ㄱ〇〇 구속
- '18. 11. 29. A회사 사장 ㄱ〇〇 구속 기소 등 최종 처분

3 수사 결과

1. 전세계 OLED 패널 시장의 95%를 차지하는 S社の 핵심기술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

- S社は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95%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, 그 중 옛지 패널은 갤럭시 노트9 등 고급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로 '옛지디자인'이라고 불리며 갤럭시 시리즈의 상징적인 디자인임



옛지패널이 적용된 갤럭시 옛지,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

- 본건 **3D Lamination 기술**은 S社の 옛지패널 제조라인의 핵심 기술로서, S社가 약 6년 동안 38명의 엔지니어, 1,5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개발한 산업기술보호법상 '국가핵심기술'이자 '첨단기술'에 해당

2. 수주 절벽을 이유로 S社가 양산 중인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

- A회사는 2017년 1조원 상당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후, 매출 유지가 어렵게 되자,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S社와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3D Lamination 설비를 몰래 수출하기로 모의
- 피고인들은 S社 납품용 설비와 동일 설비가 중국에 수출되는 경우 S社 기술이 유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위장수출 강행

3. 위장 법인을 설립하고, 위장 간판을 단 공장에서 몰래 설비 제작 후 수출 감행

- 피고인들은 A회사 사장의 형수를 대표이사로 한 위장업체인 B회사를 설립하고, A회사의 전무로 하여금 B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함
- 또한, 수사기관 등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B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텅빈 공장에 두고, 협력업체의 위장 간판을 단 공장에서 설비를 제작하면서, S社 원본 기술자료 등을 그대로 B회사에 유출하여 부정사용



<위장간판을 단 공장에서 설비를 반출>



<수출을 위해 부산신항만으로 운반>

- 뿐만 아니라, 수사 등에 대비하여 차명폰을 사용하고, 사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며 조직적, 계획적으로 범행

4. 설비에 체화된 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한 사범에 대한 수사

- 학계나 일반기업들은 오래전부터 ‘부품·장비에 체화된 노하우 이전’을 불법 기술유출의 하나로 꼽아 왔고, 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음
 - 본건 3D Lamination 설비는 A회사가 S社와 NDA(비밀유지계약)를 체결하고 S社에만 독점 납품하는 설비로서, 합법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설비임을 잘 알면서도, S社의 경쟁회사인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동일 설비를 불법 수출하였음
- ※ 중국 회사들은 S社가 수년간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S社의 양산 수준의 품질과 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구축

5. 관계기관 유기적인 공조 등으로 추가 피해 최소화

-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기술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등 관계기관 간 공조로 범행 전모를 밝혔고, 적시의 압수수색으로 수출직전의 3D Lamination 설비 8대를 부산항만에서 압수하는 등 추가 피해를 최소화



[별첨]

피고인별 처분 내용

순번	피고인	직책	범죄사실	처분결과
1	ㄱ○○	A회사 사장	위장회사 설립, 기술자료 및 설비 유출 기획 및 지시	구속기소('18. 11. 29.)
2	ㄴ○○	B회사 부사장	위장업체 운영자로 설비 수출 업무 총괄	구속기소('18. 11. 21.)
3	ㄷ○○	A회사 설계팀장	기술자료 유출 및 설비 제조	구속기소('18. 11. 5.)
4	ㄹ○○	A회사 전무	엔지니어들에게 기술자료 유출 및 설비 제조 지시	불구속기소('18. 11. 29.)
5	ㅁ○○	A회사 직원	기술자료 유출 및 설비 제조	불구속기소('18. 11. 29.)
6	ㅂ○○	A회사 직원	기술자료 유출 및 설비 제조	불구속기소('18. 11. 29.)
7	ㅅ○○	B회사 직원	기술자료 유출 및 설비 제조	불구속기소('18. 11. 29.)
8	ㅇ○○	A회사 직원	기술자료 유출 및 설비 중국 영업	약식기소('18. 11. 29.)
9	ㅈ○○	B회사 직원	기술자료 유출 및 설비 중국 영업	약식기소('18. 11. 29.)
10	ㅊ○○○	중국 C회사 본부장	설비 유출	기소중지 ('18. 11. 29.)
11	ㅋ○○○	중국 C회사 엔지니어	설비 유출	기소중지 ('18. 11. 29.)
12	A회사	법인	양벌규정	불구속기소('18. 11. 29.)
13	B회사	법인	양벌규정	불구속기소('18. 11. 29.)

<범행구조도>

